

# 정보 습득·분석 '쉽고 빠르게'... 인천이 똑똑해진다

인천시가 위치정보(GIS)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시는 15일 스마트 도시 인천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을 발표했다. 시는 '위치기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라는 목표 아래 5대 주력사업에 위치 정보를 곧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구를 만들 생각이다.

시는 다른 시·도가 현재 추진하는 ICT 중심의 스마트 시티 방식을 지양한다. ITIC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기기 운영·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 생산, 기구·보존, 전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GIS 플랫폼(지식정보 공유)을 활용해 올해부터 실용화에 들어간다.

GIS 플랫폼은 단초 시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2016년 43개 분야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예산 절감, 행정 점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몇몇 서비스에 GIS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이다. 시는 인구·교통·부동산 등 56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정보를 지도에 담았다. 문자·우주의 데이터에서 벗어나 내 위치를 중심으로 인구·부동산·치안·석악·지역·어린이집·현황 등 생활정보를 지도로 볼 수 있다.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만들고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클라우드 GIS 플랫폼 운영으로 병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지도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서·개인·업무 사이의 한계가 사라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문화예술정보 아이큐어(AP)'을 개발해 인천과 인근 경기권의 연극, 공연, 축제 등의 정보를 모아 알려주고 있다.

문화예술 주체 기관별로 지역이나 문화시설 인터넷 누리집에 일일이 시민과 일정을 출고를 출인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제별, 시간별로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열릴지도 알 수 있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주민센터 등 500여개 기관과 3만5000여명에 이르는 시민이 회원 등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인천 뿐 아니라 인근 부천, 김포, 원산, 서울 등의 문화정보, 인터넷이회 N방송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관 신청, 공연·전시·체험 예약, 일련의 기능도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GIS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다.

소방재난과 119상황실, 병원 등 소방·유관기관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 시스템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소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장 영상과 시진을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파악과 초동조치, 구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정보전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각종 현장 상황과 복잡한 업무 보고로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단점도 해결했다. 인명·재산 피해 증가 가능성도 없었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보·복합이 가능한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는 스마트 커뮤니티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커뮤니티는 단순한 자료를 공개하

**[A]** 식첨보 공유 도시 구축, 다른 도시와 차별화



인천시가 위치정보(GIS)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해 쉽게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시는 15일 스마트 도시 인천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을 발표했다. 시는 '위치기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라는 목표 아래 5대 주력사업에 위치 정보를 곧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구를 만들 생각이다.

시는 다른 시·도가 현재 추진하는 ICT 중심의 스마트 시티 방식을 지양한다. ITIC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기기 운영·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 생산, 기구·보존, 전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GIS 플랫폼(지식정보 공유)을 활용해 올해부터 실용화에 들어간다.

GIS 플랫폼은 단초 시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2016년 43개 분야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예산 절감, 행정 점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몇몇 서비스에 GIS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이다. 시는 인구·교통·부동산 등 56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정보를 지도에 담았다. 문자·우주의 데이터에서 벗어나 내 위치를 중심으로 인구·부동산·치안·석악·지역·어린이집·현황 등 생활정보를 지도로 볼 수 있다.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만들고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클라우드 GIS 플랫폼 운영으로 병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지도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서·개인·업무 사이의 한계가 사라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문화예술정보 아이큐어(AP)'을 개발해 인천과 인근 경기권의 연극, 공연, 축제 등의 정보를 모아 알려주고 있다.

문화예술 주체 기관별로 지역이나 문화시설 인터넷 누리집에 일일이 시민과 일정을 출고를 출인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제별, 시간별로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열릴지도 알 수 있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주민센터 등 500여개 기관과 3만5000여명에 이르는 시민이 회원 등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인천 뿐 아니라 인근 부천, 김포, 원산, 서울 등의 문화정보, 인터넷이회 N방송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관 신청, 공연·전시·체험 예약, 일련의 기능도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GIS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다.

소방재난과 119상황실, 병원 등 소방·유관기관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 시스템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소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장 영상과 시진을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파악과 초동조치, 구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정보전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각종 현장 상황과 복잡한 업무 보고로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단점도 해결했다. 인명·재산 피해 증가 가능성도 없었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보·복합이 가능한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는 스마트 커뮤니티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커뮤니티는 단순한 자료를 공개하

**[B]** 인천시 GS 플랫폼 추진 내용

시기	핵심 내용	세부 내용
2013년	GS 플랫폼 구축	전국 최초 GS 플랫폼 도입
2014년	GS 플랫폼 구축	인천 이시안개념 13개 지도 콘텐츠 구성, 행정 정보 2800만건 95% 지도로 구축.
2015년	GS 플랫폼 확산	전국 최초, 바탕에 시민기반 플랫폼으로 지도서비스 제공
2016년	GS 인천 주진	43개 시·군·구·읍·면·동 행정 기관과 시민 서비스 제공
2017년	스마트 GS 인천 주진	위치기반 행정 구현화, IoT·AI 신기술 접두 확대

/한국기자협회 hns@nchoniba.com

/서면제공=인천시



유동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15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열린 'GIS 플랫폼 기반 스마트 인천 컨퍼런스'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면제공=인천시